

〈발표2〉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김선미(성균관대 박사과정 수료)

홍경준(성균관대)

수급가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다. 급여를 통해 이들은 의복과 음식을 충당하고 연료를 구입하며 각종 공과금과 집세를 낸다. 뿐만 아니라 아픈 몸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게 하는 데에도 급여는 필수적이다. 아기를 낳거나 식구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이들은 급여를 통해 도움을 얻는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이들을 지원한다. 그 선 언저리에서 수급가구는 매순간 급여와 더불어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조직해간다. 본 글은 이러한 수급가구의 가계운영은 어떤지, 그를 둘러싼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급여 = 가계수입

가. 아쉽지만 고마운 급여, 그리고 보충급여방식과의 줄다리기 한판

암만 많이 줘도 내가 만족한다는 소리는 못하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단 돈 만 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감사한 거죠.〈광역시. 일반가구, 조건제시유예(질병)〉

수급자들은 실제 급여를 받아본 후에는 급여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적는데 대해 적잖게 실망하게 된다. 불만을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실제 소비지출에 활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도가 판정한 수급자들의 소득능력과 실제로 보유하고 인식하고 있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능력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가 급여원칙에 대한 몰이해든 전담공무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이든 간에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게 하며 신청당시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다반사기도 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제도의 작동원리(보충급여방식)를 파악할 때쯤 되면 현금급여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들은 애원과 거짓말, 협박과 회피 등의 다양한 대응책을 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전담공무원들로 하여금 수급자를 불신하게 한다. 또 한편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을 추정하게 하므로 전담공무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나. 동아줄 잡기

나는 바라는 것은 뭐냐면. 병원 다녀 싸니까. 이거 찢러버리든 공짜 뭐 조금씩 거 얼마씩 나오는 거 이걸 떠나서. (의료급여)라도 안 찢렸으면. 인자 이런 바램이여. 고거 찢러버리면 우리 죽어.<농어촌, 일반가구, 조건부과제외>

급여자격을 획득하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7가지 급여를 패키지로 받게 된다. 가구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여러 종류의 급여 중 하나만을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의료급여'라고 대답했다. 의료급여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수급탈피가 자칫 주거상실로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¹⁾ 역시 급여를 계속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 급여자격 유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친정이) 잘 살면 그것도 좀 제가 찾아가고 하는데...기반이 비슷비슷하니까..뭐 솔직히 도움 청하고 그럴 입장은 못돼요.(중략)시댁은...원래 가진 게 없으셨고.. 누나분들은 이제 뭐 사는건 잘사는데..솔직히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움 청하려는 자체가 좀...<수도권, 일반가구, 조건부과제외>

한편 대부분의 수급가구는 경제적 결핍에 이르는 과정에서, 혹은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보니 가족과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생계를 꾸리느라 왕래조차 없어 친구나 친지와 교유는 가물에 콩난다고 했다. 자식들이나 친인척도 돕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급여는 그래서 아쉽지만 고맙다.

차상위실태조사(이현주 외, 2005)에 의하면 수급가구의 연간 총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정도다²⁾. 수급가구에 있어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소득원천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소득원천보다 안정적이며 규칙적인 소득원이 된다. 때문에 수급가구의 가계운영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도움을 받을 만한 연결망이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급가구는 어찌해서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수급의 끈을 놓치면 안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 동아줄은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 가족시네마 : 어색한 가족 만들기

애가 대학만 졸업하면 탈락되거든요. 앞으로 3년 뒤에는 탈락이죠.(중략) 제가 몸 상태를 자신이 잘 아니까(장애5급)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애가 결혼하기 전까지는...(중략)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를 가구에서 분리시키면...뭐 수급비 나온다.(중략)아들을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데, 그런데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광역시, 일반가구, 조건부과>

강신욱 외(2006)의 연구의 수급탈피가구의 탈피사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성장'으로 수급을 탈피했다는 것이 46.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 역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당수의 수급자들은 자녀의

- 1)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여부에 따라 할증임대보증금과 할증임대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수급탈락 혹은 탈피하게 되면 해당 가구는 세 번에 걸친 할증을 통해 청약저축가입자격으로 입주한 가구와 동일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2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4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청약저축가입가구의 경우 평균 500만원 이상의 임대보증금과 7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별도이다.
- 2) 영세자영이나 일용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후원이나 부양의무자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을 탈수급한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다. 왜냐하면 자녀의 성장과 취업은 모든 급여가 동시에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의 연구결과는 반복수급가구의 수급탈피사유도 조사했는데, 마지막 수급 탈피의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의 증가였고(약 22.5%), 다음이 자녀의 성장이었다(약 19.7%). 결국 후자인 약 20%는 자녀의 성장으로 수급탈피했다가 다시 수급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소득원인 급여의 확보를 위한 (가구분리와 같은) 노력을 잃어낼 수게 된다. 응답자들은 급여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형식적이기는 하나 인위적으로 가족을 해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편한 마음은 아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라는 고리를 끊기에 너무 미안하고 서글프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녀의 성장기 및 독립기를 앞둔 가구와 달리 노인가구에서 급여자격부여에 대한 기준은 부모자식지간을 경직되게 하기도 한다.

동사무소직원이 딸하고 사위하고 쫓 본다 그래서 20만원 짤랐는다. 딸도 안 보태주고... 그 놈 갖고 하나갈라니..(내가 죽을 지경이요) 20만원정도 나왔는데...도저히 하나갈 수 없어요. 관리비 하고 휴대폰값, 전화세, 뭐...(중략)딸하고도 의절해버렸어 이제.. 나 죽어도 오지 말라고 했어. 나 죽어도. 나 보증금 찾아놓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화장할 거야.<수도권, 노인단독가구, 일반수급>

여기서의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현실에서 발생하게 된다.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이라 해도 실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지나친 강조는 자칫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와의 '가족관계'를 더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명시적인 목표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때 자립조성을 자립과 관련된 제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가족 복지(Well-being)의 향상이 그 갈래가 되는데(이현주 외, 2002)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과 가족복지향상을 명시적 목표로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두고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지출과 싸우기

빠듯하죠, 그러다고 애들 학원은 안 보낼 수도 없고, 지금 3학년인데. 저축은 못해요, 꿈도 못 꾸지. 애들이 좀 커서 같이 벌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있는 보험조차도 다 그냥 해약해가지고.<중소도시, 모자가구, 조건부과제외>
집세가 제일 크고, 교육비 빼고, 다음에 먹고 사는 거.<중소도시, 모자가구, 조건부과제외>

가. 필수불가결한 지출

최저생계비에서 가정하는 규범적인 소비행태와는 물론 다르지만, 수급자들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은 식료품비였다. 그리고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긴급히 소요되어하는 소비지출항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원 중 질환자가 있을 경우엔 의료비의 지출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했고, 이는 수급자들의 가계를 적자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학령기의 자녀를 가진 수급가구의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컸지만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겨울이 없으면 싫더라고 어떤 때는. 겨울 되면 난방비랑 도시가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름에는 도시가스비가 2-3천원 아래로 나오는데 겨울 되면 뭐 5-6만 원 돈 나와 버리니까. 어떤 때는 아유, 우리나라도 겨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수도권, 남성단독가구, 조건부과제외(일용직)>

주거비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대략 15만 원에서 20만원정도의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일반주택거주 수급가구는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등 다양한 점유형태를 보였는데 전세 거주자의 경우는 월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노후한 주거 설비 및 시설 등으로 인해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보증부월세나 무보증월세의 경우 광열수도비 등에 대한 지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은 주거상향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지만,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임대보증금, 다달이 감당해야 하는 월임대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는 어려운 듯 보인다. 주거비와 관련해서 특히 수급자들은 동절기에 가계수지를 적절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일종의 가치재(merit goods)이기에 일정수준의 지출이 규범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면,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급여체제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필수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학원을 안다니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친구들이 다 가니깐 자기도 다니고 싶대요. 학원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농어촌, 일반가구, 조건부과제외〉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필수품이라고 볼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수급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절실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출은 수급자들이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보통사람들처럼 살아가거나, 아이들을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하거나, 빈곤 탈출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데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 수지균형 맞추기

수급자들은 가계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 관계망의 활용, 복지관, 종교단체,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식적 지원망으로부터의 도움받기, 비공식적 근로활동, 온정주의에 호소, 지출 줄이기 등이 그것이었다.

그냥 일을 해줘요. 우리 권사님이 미장원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미장원도 도와주고, 또 다른 데서 부르면 또 그것도 좀 도와주고.〈중소도시, 편모가구, 조건부과제외〉

아내가 병원 퇴원할 때 고지서가 28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동장실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정 했더니 동장님이 인자 사무장을 불렀더라고요.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사무장이 집에 가 있으라고. 한 달에 오만 원 씩인가 붙어서 내보낼 테니까 병원 주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광역시, 노인부부 가구, 일반수급〉

우리 먹는 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지. 정부에서 쌀은 두 자루 주니까 뭐 반찬이야 있든지 없든지, 먹는 거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먹고 쓰는걸.〈광역시, 일반가구, 조건부과제외(일용직)〉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가족 및 친인척을 비롯한 이웃 등의 관계망은 약간의 도구적·물질적인 도움과 심리적·정서적 도움의 제공처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도움은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에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듯하다. 작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다. 수급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나 이

3) 월임대료는 급지와 평수, 층수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나타난다. 2006년 말 현재 약 9만6천여의 수급가구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웃 외에도 공식적 지원망, 복지자원제공처로서 학교, 종교기관, 복지관과 어린이 집 등으로부터 상품권, 음식, 연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 등의 현물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수급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신청해주기도 했다. 또 수급자들은 온정주의에 호소하기도 한다. 다급한 상황이 되면 이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만나 사정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더 높은 사람을 찾아 읍소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계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때때로 비공식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면서 부족분을 메우기도 했고 이런 전략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결국 지출을 줄였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로 식료품비와 피복비였다.

라. 팍팍한 삶이 남기는 상처들

명절 때 한 동안 못가고 있거든요. 한 번 거기 가려면 교통비 하고, 뭐 이것저것 선물 같은 거 사려면 3~40만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명절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게(광역시, 일반가구, 조건부과)

북한에 도와주는 거 말도 안 돼. 나도 어렵지만 지금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허다한데...(농어촌, 일반가구, 조건부과제외(농업))

아 뭐라고 말을 할까. 상당히 공격적이예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끼리 더 여유가 있게 좀 친하게 이웃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요. 첫째로는 삶이 고달프다보니까 여유가 없고...(중략)저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이게 돌아볼 여유가 조금 있는데...그런 것이 없고, 누가 더 날 안도와주나 이런 것들이...(중소도시, 모자가구, 조건부과제외)

우리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투쟁이 남긴 상처들을 엿볼 수 있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한다. 텅 빈 곳간에서의 팍팍한 삶은 염치없는 사람으로, 사람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가계유지에 대한 긴장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인심을 베풀지 못하게 할뿐더러 오히려 다른 수급자들을 질시하고 시기하게 만든다. 특히 이런 면에서 수급가구가 밀집한 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제한된 자원과 넘쳐나는 욕구들로 경쟁의 공간이 되기 십상이다⁴⁾.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반목,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낙인은 주민들 간의 관계를 더욱 소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

3. 빈곤한 삶, 그들의 생태(生態)

본 글에서는 수급가구의 가계운영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대다수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장 큰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 현금급여가 전체 수입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흘러드는 안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끈이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양가감정을 가진다. 한편으론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아쉬운 것이다.

이는 급여수준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근거에는 부정확한 제도홍보를 비롯해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이 있다. 어찌되었든 각자의 연유에서 수급자들은 급여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보충성 원칙과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가족만들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급여로 운영하는 가계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들의 실제 소비행태와 다르기

4) 한편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수급자가 있기도 했다.

때문인데⁵⁾, 이 부분에서 적어도 주거급여가 실제를 반영, 실질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가계수지 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들은 나름의 대응방식을 활용한다. 가족이나 이웃, 동료와 같은 사적 관계망을 활용하거나 복지관, 종교단체, 학교 등의 공식적 지원망을 활용하거나 온정주의에 호소한다. 비공식적 근로에 종사하기도 하고 아예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수급자들은 상처를 입고 입힌다. 특히 빈곤층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을 비롯해 외부로부터의 편견과 낙인은 거주민 스스로의 모멸감, 거주지역에 대한 혐오를 불러와 사람들간 상호작용에 장벽을 높이고 결국 지역의 활력을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수급가구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망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지원의 조성이 필요함을 생각해 한다.

5)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들은 식료품비, 주거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 오락비, 비소비지출을 줄여서 교통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소비지출에 충당하고 있었다. 주거가 삶의 기반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제도내에서 인정한 바라면,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가 일종의 가치재(merit goods)이므로 일정 수준의 지출이 규범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면,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급여체계로 꾸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